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놀랐지만 기대는 놓지 않은 미국증시, 혼조 마감

- 미국 증시 급락 출발 후 낙폭 만회: 다우 -0.13%, 나스닥 +0.18%
- 트럼프 강경 발언에 유가 급등..WTI 110달러 상회
- 주간 고용 지표 안정..미국 수출/수입도 동반 확대

Summary

미국 증시 주요 지수 급락 후 낙폭 축소

4월 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전쟁 장기화, 격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급락 출발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논의가 이란과 오만 사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재차 기대감을 키우며 낙폭을 만회, 혼조 마감. 대체로 전쟁 관련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하는 모습.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13% 하락한 46,504.6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11% 상승한 6,582.69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도 0.18% 상승한 21,879.18에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70% 상승한 2,530.04에 거래를 마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2.73% 하락한 23.87에 마감.

현지시각 금요일은 성금요일을 맞아 미국 증시 휴장. 채권 시장은 조기 종료.

(다우 -0.13%, 나스닥 +0.18%, S&P500 +0.11%, 러셀2000 +0.70%)

트럼프의 으름장 vs.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석기 시대' 등의 표현을 쓰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한 가운데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음. 다만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에 대한 프로토콜(규약)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다시 한 번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분을 대체로 만회했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감시를 위한 프로토콜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선박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시장은 이 소식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호재로 인식. 다만 이란 의회는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때문에 이 날 나온 오만과의 프로토콜 초안 마련 소식도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시각. 만일 호르무즈 해협을 톨게이트화 해 이를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 때문에 증시 낙폭 축소와 달리 유가는 오름폭을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03

달러로 전장 대비 7.8% 상승했고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54달러로 11.4% 급등. 다만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최악 대신 차악'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증시의 낙폭은 줄이는 쪽으로 작용한 것으로 읽힘. 한편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은 이 날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함.

고용지표: 채용도 해고도 둔화

현지시각 3일 노동부 고용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이 날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공개. 미 노동부는 지난주(3월 22일~28일) 실업수당을 신규로 청구한 건수가 전주 대비 9천건 감소한 20만 2천건을 기록했다고 밝혀. 이는 시장 예상치 21만 2천건을 하회하는 것. 4주 평균 청구건수 역시 전주 21만 750선에 비해 줄어 20만 7천 750건을 기록했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4만 1천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 다만 이 역시 4주 평균치는 183만 9천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

이외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6만 620명으로 전달 대비 25% 증가했음.

이번주 초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JOLTs와 전일 공개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이 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저고용, 저해고 국면으로 해고가 적지만 채용도 둔화된, 노동 시장 자체가 침체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질적 활력은 다소 떨어진 상태로 평가됨.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에너지 가격이 경제 전반에 침투하기까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며 에너지 충격이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 다만 그는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은 연방 준비제도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모두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 이 날 로리 로건 미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전쟁 장기화는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양방향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

2월 무역수지도 공개됨.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73억 달러로 전달 대비 27억 달러, 4.9% 증가해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됨. 다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수입 증가폭이 컸던 영향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0억 달러는 밑도는 수치.

특징종목

반도체, 종목별 희비 엇갈려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였으나 장 초반 급락을 뒤로 하고 낙폭 축소하는 흐름이었으며 AMD(+3.47%), 인텔(+4.89%), 엔비디아(+0.93%) 등의 시장 내 비중이 큰 종목 중심으로는 적지 않은 폭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0% 상승.

특히 에르스테 그룹이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AMD(+3.47%)가 강하게 상승했으며 전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보유한 아일랜드 팹의 지분을 재매입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던 인텔(+4.89%)이 전 거래일 8%대 급등에 이어 5% 가까이 추가 상승.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44%)는 에르스테 그룹이 높은 자본 투자로 인한 잉여 현금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사흘만에 소폭 약세 전환. 웨스턴 디지털(-0.93%)이 하락했지만 샌디스크(+1.2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47%) 등 이외 스토리지 관련주는 1%대 상승권에 마감.
그럼에도 이란과의 갈등 격화는 사실 에너지보다도 헬륨 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반도체주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0.73%), 램 리서치(-1.61%),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51%) 등은 약세.

에너지/비료주 강세 vs. 항공/여행주 약세

유가 상승은 에너지주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지만 연료 비용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항공주와 크루즈주 등에게는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함.
셰브론(+0.79%), 코노코필립스(+1.67%), EOG 리소시스(+1.58%), 옥시덴털 페트롤리엄(+1.19%), APA(+1.67%) 등의 에너지주가 대체로 상승.
넥스트디케이드(+6.95%) 등의 LNG 수출사도 강하게 상승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이 막히며 공급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 속에 CF 인더스트리스(+1.55%), 인트레피드 포타시(+4.09%) 등 비료 관련주도 강세.

델타 에어라인스(-1.24%),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1.65%), 아메리칸 에어라인스(-2.61%) 등의 항공주는 약세. 카니발(-3.54%),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3.00%) 등 크루즈주도 약세.
이외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행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익스피디아 그룹(-1.04%),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1.07%), 메리어트 인터내셔널(-0.46%), 에어비앤비(-0.19%) 등의 여행 관련 기업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임.

자동차주 전반 약세

자동차주는 기존 레거시 업체와 전기차 업체 모두 약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신차 수요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1분기 판매량이 대체로 부진했던 것이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테슬라(-5.44%)는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35만 8천대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와 회사 자체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한 것.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배송량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는 회사가 AI 전략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함. 테슬라는 4월 2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기는 했지만 이는 신차보다 중고차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때문에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대수에는 예상보다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GM(-3.33%)도 전일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낙폭 확대했고 포드 모터(-0.69%)도 제한적이나마 동반 약세.
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약진은 이어지고 있어 3월 전년 대비 136%,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대비 98.3% 증가한 인도 대수를 보고한 니오(+1.61%)가 상승 마감했고, 샤오펑(+1.09%), 리오토(+0.49%) 등 이외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동반 상승함.

약가 인하 압박에 제약주 투자심리 위축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명 제약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정부의 약가 협상에 동의하거나 자국 내 생산을 약속하지 않으면 약 100%의 관세를 봐가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제약사들이 생산 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한편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제약 업계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전일 공복 조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으며 강하게 상승했던 일라이 릴리(-1.98%)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목표가 상향에도 하락했고, 애브비(-2.86%), 암젠(-1.51%), 바이오젠(-3.50%),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퀩(-2.45%) 등이 동반 하락함.

사모신용 불안은 여전

대체자산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1.61%), 이 최근 주주서한을 보내 올해 1분기 자사의 주요 사모대출 펀드 2곳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했다고 밝힘. 환매 요청 규모는 '블루아울 크레딧 인컴'의 경우 운용자산 360억 달러의 21.9%를 기록했으며, 기술 대출 소형 펀드 '블루아울 테크놀로지 인컴'에서는 운용자산의 40.7%까지 치솟았음. 두 펀드의 전분기 환매 요청 비율은 각각 5%와 17%로 한 분기만에 환매 요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확인. 회사 측은 환매 요청 증가의 배경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관련 우려가 시장 불안을 고조시켰다며 환매 요청 급증에 따라 두 펀드 모두 발행 지분의 5%로 환매를 제한했다고 밝힘. 블랙스톤(-1.12%), 아레스 매니지먼트(-3.19%),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2.91%) 등 관련 자산운용사 주가 대체로 부진.

뜨거운 우주 산업

우주 산업 관련주들이 여러 호재성 이슈들 속에 대체로 상승함. 글로벌X가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일 NASA가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2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마존닷컴(-0.38%)이 모바일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11.55%)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모두 관련주 투자심리를 자극함. 글로벌스타(+13.42%), 로켓 랩(+3.37%), 플래닛 랩스(+16.83%).

필수소비재=방어주

시장이 급락 출발 후 낙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움직이며 안정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이란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등의 방어적 성격

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 월마트(+0.84%), 코스트코(+1.85%), 달러 제너럴(+2.19%), 코카콜라(+0.84%)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가격 강보합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소폭 하락. 전일의 상승을 뒤로하고 하루만에 하락 전환(가격 상승)함. 분쟁 장기화와 그로 인한 성장 둔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으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내 금리 인상 베팅은 희박.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 금리는 0.5bp 하락한 3.796%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1.4bp 하락한 4.3049%에 마감.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4.8795%에 거래를 마침. 미 국채 금리는 유럽 거래까지는 모든 구간에서 상승했지만 뉴욕 거래로 넘어오면서 방향을 빠르게 전환함.

달러 가치 사흘만에 반등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사흘만에 반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간 이란 공습을 강화하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한 발언이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0.006으로 전장 대비 0.36% 상승해 다시 100선을 상회. 유로/달러 환율은 1.1538달러로 전일 대비 0.01% 소폭 하락했음.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9원 이상 하락했으며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도 최근 1개월 스와프포인트를 고려하면 9원 15전 하락한 1,509원 10전에 마감.

한편 오늘 아침 발표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4천 236억 6천만 달러로 집계.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의 최저치이며 감소 폭은 2025년 4월 이후 11개월만에 최대. 시장 안정화 조치와 강달러에 따른 기타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WTI 11% 급등..금값은 하락 전환

상품시장에서 국제유가는 트럼프대통령의 대 이란 공격 지속 의지를 반영해 큰 폭 상승. 5월 인도분 미국 서브 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1.41% 급등한 배럴당 111.54달러로 거래를 마침. 약 4년래 최고치. 또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7.8% 오른 배럴당 109.03달러로 거래를 마감.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역전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상반기 이후 약 4년여만의 일이며 이란과의 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원유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전망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 이외에도 WTI 5월물에 현재의 전쟁 프리미엄이 집중된 반면 3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브렌트유 6월물에는 종전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음.

이외 최근 반등세를 보이던 금값은 달러가 반등한 영향으로 하락. 뉴욕상품거래소(COMEX)

에서 금 선물 6월물은 전장 대비 온스당 2.8% 하락한 4,679.7달러에 마감. 금 현물 역시 2%대 하락. 이외 은값도 4%대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하락.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